

연극에 매료되었던 화가  
『장 앙투안 와토』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침단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작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다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면서 덩으로 창의력까지 얻게 된다.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와토는 연극에서 영감을 얻어 명랑하고 쾌활한 로코코 양식의 ‘페트 갈랑트(야외에서 우아하게 차려 입은 남녀 인물들이 사랑을 속삭이거나 세레나데를 부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낭만적인 장면을 말한다)’를 창시했다.

그가 창시한 페트 갈랑트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이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다. 이 작품은 허구와 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가 태어난 곳이 키테라 섬이다. 해안으로 밀려온 과도의 거품에서 비너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후 키테라 섬에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섬에 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면 왼쪽에 멀리 배가 보이고 연인들은 배에 오르고 있다. 꼬마 천사들은 연인들을 에워싸고 있고 오른쪽 큰 나무 아래에는 비너스의 조각상은 여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조각상 아래 푸른색의 드레스 위에 붉은 색 겹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고

연인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커플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화면 중앙 지팡이를 들고 있는 뒷모습의 남자는 오른손으로 여자의 허리를 잡고 재촉하고 있지만 여인은 머뭇거리며 뒤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장면은 사랑의 단계를 나타낸다. 남녀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연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관계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사랑의 후회를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아기 천사가 비너스의 몸에 월계수 화환을 두르고 있고 비너스의 발밑에는 책과 무기들이 버려져 있다. 그것은 사랑은 지식이나 전쟁, 예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1717년, 캔버스에 유채, 129\*194,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와토는 오페라나 코메디 델라르테(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가면극)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 <메체티노>다. 메체티노는 16~17세기 이탈리아서 유행하던 희극의 등장인물로 기사의 시종이나 심복의 역할을 하는 짝사랑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메치티노는 정원 의자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며 애절한 눈빛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메체티노의 뒤에 나무가 무성한 정원에는 돌아

서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있다.

이 작품에서 여인의 조각상은 무대 배경으로 메체티노의 이상의 세계를 나타낸다. 여인의 조각상은 메체티노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을 암시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택이 흐르는 화려한 옷, 장미꽃 장식이 있는 분홍색 신발,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자는 굵고 짧은 목, 벌어진 어깨의 메체티노의 강인한 육체와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암시한다.

와토가 연극의 유쾌하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주인공들을 우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건강이 나빴기 때문이다. 평생 결핵으로 고통 받았던 와토는 성격이 까다로웠으며 남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질병의 고통을 등장인물로 표현했다.

장 앙투안 와토<1648~1721>은 낭만적인 전원풍경을 매우 우아하고 세련된 색채로 표현해 당대 가장 최고의 화가로 평가 받았다. 그의 사후에는 주제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신고전주의 화가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와토는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메체티노>-1717~1719년, 캔버스에 유채,  
55\*43,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